**Life is 42**

시험도 거의 다 0점이었을 거에요. 파이널만 제외하고요.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당시 42실리콘밸리에 대한 정보가 몇 없었는데요, 개중에는 '42는 성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붙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만 붙들었죠.

42실리콘밸리는 확실히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에꼴42의) 직영점 느낌이었거든요. 100점 맞았는데 0점이 되기도 하고, 같은 코드를 제출했는데 얘는 100점이고 쟤는 0점이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도 그곳의 분위기는 되게 태연하게 'Life is unfair'라고 하면서 '그건 네가 이번에 운이 나빴다'라며 넘어갔었죠. 하지만 42서울에서는 이제… 이해가 가긴 해요. 비교하자면 한국 학생들이 확실히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놀자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조금 더 점수 차이에 되게 민감하고, 꼭 100점 맞아야 하고요(웃음).

학장님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서 인터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한번은 인터뷰하는 분이 '학장님이 추천해서 널 인터뷰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에요. 근데 항상 주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니면 '너무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아...' 였어요(웃음). 열심히 한 걸 많이 보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한테는 진짜 'Life is 42' 죠. 42서울에서 인턴 생활을 했을 때는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고 싶었었는데 그보다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퇴사 후에 아쉬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마침 NHN Edu 인턴 계약이 끝날 때쯤에 42서울의 채용공고가 올라와서, 이번에는 뒤에서 좀 42를 파 보고 싶어서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많이 어려워요. 파면 팔수록 또 모르겠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제가 하는 업무요? IT 인프라 담당이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용이나 교육용 툴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주로 파이썬을 사용해요. 리부팅 봇 karvin도 만들었어요. 제 이름인 kristine과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에 나오는 marvin을 합친 거예요(웃음). 업무 외적으로는 언리얼도 하고 아두이노도 하고 Three.js도 하고 있어요. 웹에서 쉽게 3D 모델링을 쉽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가 Three.js 에요. 요새는 웹사이트가 3D로 되어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야에 관심이 가는 걸 보면 프론트엔드 쪽을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해요(웃음).

42의 아이맥들은 커스텀이 되어 있어요. 뒷단에서부터,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프랑스(에꼴42)에서 조작을 해놨어요. 저도 그런 커스텀이 가능한지 몰랐는데 가능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체크인 미팅할 때 서버에 학생 정보를 저장해요. 아이맥에서 로그인하면 그 서버에 해당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학생 스토리지 서버에 요청해서 ‘야 여기다 붙여'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자리에서 로그인해도 자기 작업물이 있는 원리에요. 채점은 컴퓨터마다 Moulinette 프로그램이 있어요. 채점을 요청하면 컴퓨터 중 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야 이거 채점해'라고 명령하는 거에요.

페이스북 같은 곳에 보면 42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로 의견이 되게 많아요. 42에 대한 기사를 퍼와서 의견을 공유하는 건데 그 밑에 댓글을 보면 '저래 가지고는 개발자 양성 절대 못 한다',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다 배울 수 있냐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서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교육 방법이 다른 거고 42의 교육 방법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피씬을 여는 거잖아요. 42가 좋은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정리 후 남은 내용**

Q. 그래도 개인 이모지가 있는 분이잖아요. 파란머리의 이모지요. 파란색깔이 좋아하는 색깔인가요?

A. 그건 아니었는데 다른 색깔 염색을 해봤고, 파란색은 안해봐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한거였어요. 그리고 42 다니면 저를 상징하는 색처럼 되어서 좀 애착이 가기도 해요.

2017년에 피씬을 하고 2018년에 본교육 과정을 시작했어요. 본교육은 일 년 정도만 하고 나머지 기간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뽑혀서 AR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면, 학장님과 담당자가 선발하는 방식이었어요. 본과정 과제를 안하고 자기 프로젝트만 하면 되는데 대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야기를 했어야 했구요. 마케팅까지도 팀에서 알아서 다 했었어요. 다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팀들이었죠.

피신 때 개발도 힘들었지만, 옆에 친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걸 보면서 힘들었거든요. ‘쟤는 나랑 똑같이 시작해서 저만큼 갔는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걸 42를 경험하면서 많이 깼어요. 지금도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항상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는 할 수 있겠지?' 하죠.

42에서 개발보다 의미있는 것을 배웠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생각하게 됐죠.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실력이 늘어있어서 성취감이 컸거든요.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성취감 느낄 일이 많이 없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도 붙고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보니 '내가 뭔가를 앉아서 계속 할 수 있구나,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은 카뎃분들이 저를 잘 몰라요. 어느 날은 시험 시작 5분 전에 '핸드폰 집어넣으세요'라고 이야기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시험 운영 봉사를 본과정 카뎃분이 하시잖아요? 그분이 '자리에 빨리 앉으세요. 지금 일어나계시면 안 돼요. 빨리 앉으세요'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스태프입니다'라고 했죠. 그 정도로 절 모르세요(웃음).

**녹취록 정리본**

Q. 그거 봤어요. 로그인 안 될 때 해결해주는 봇 같은거요.

A. 맞아요. 리붓 시켜주는거요. 되긴 되는데 원격 접속이 안되는 컴퓨터들이 간간히 생기거든요. 학생들이 딱 그런 자리만 앉는 건지 원격 접속이 안 되는 자리가 않은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가서 강제로 재부팅을 시켜줘야해요. 아니면 네트워크 설정이 바뀌어 있을 때도 있어요. 피신에서 잘 됐는데 그래서 여기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Q.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거에요?

A. 저희가 원래 서버에 접속해서 커맨드를 날려주거든요. 스토리지 묶여있는 거 떼 주는 커맨드, 리붓 시켜주는 커맨드 이런걸 장고를 이용해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Q. 크리스틴님은 여기서 일한지도 꽤 됐죠. 언제 다시 돌아오신거죠?

A. 저는 작년 5월에 다시 돌아왔어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있었고, NHN에듀에서 인턴생활을 잠깐 하고 다시 돌아온거에요.

Q. 요즘 따로 만들거나 활동하는 것 있으세요?

A. 저는 작년에 제로원 크리에이터를 doosoo님이랑 팀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아는 분이 작품활동 하시는데 아두이도 코딩하는걸 도와주기도 했고, 그러고 있습니다.

Q. 제로원은 뭐에요? 궁금했어요.

A. 제로원은 현대차에서 주관하는건데 아티스트들 지원해주면서 작품활동하게 하는 레지던시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원래는 아티스트들만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기술과 접목해서 하는 크리에이터들을 뽑아야겠다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뽑혔었죠. 게더타운 같은걸 만드려고 했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온라인으로 어떻게하면 학습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확실히 오프라인이랑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게요. 그래서 어떻게하면 온라인에서도 그걸 실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열심히 했었어요.

Q. 크리스틴님은 프론트였던건가요?

A. 네 저는 프론트를 했어요. 프론트를 처음해보는거여서 헤매기도 했죠.

Q. 두수님은 어떤 걸 하신거에요?

A. 두수님은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셨어요. 두수님 아시는 분이 디자이너였고, 저는 개발자로 들어갔었죠. 아이디어도 두수님 아이디어였어요. 두수님이 아는게 많으세요. 여러 방면으로요. 프로젝트는 재미있었지만 힘들기도 했어요. 마지막에는 전시를 해야하는데 저희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보니 전시를 해 본 경험이 없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전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그 사이에서 조금 주눅들었었죠.

Q.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42와 엄청나게 긴 시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미국에 계실 때도 42였고, 한국에서도..

A. 저한테는 진짜 'Life is 42' 죠. 학생 때는 제 공부를 했었던거고, 42서울에서 인턴생활을 했을 때는 뭔가 여기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조금 알고 싶었었는데 그보다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아쉬움이 조금 있었거든요. 마침 nhn에듀 계약이 끝날 때 공고가 올라오기도 해서 이번에는 뒤에서 좀 42를 파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많이 어려워요. 파면 팔수록 또 모르겠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죠.

Q. 뒤에서 본다는게 42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시스템 그런쪽일까요?

A. 네 보통 서버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하는 역할을 하구요. 그 다음엔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 준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exam shell 이라든가 moulinet 같은 것들이요. 그거 버전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시키고, 시험 볼 때 문제가 생기면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 jwon이 final exam 두 번 본 이야기 blabla.. -

Q. 요즘 42는 어떤가요? 저희(yechoi, jwon)가 볼 땐 학생들이 시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는 반면 이것이 라이프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구요.

A. 이건 '라떼는'인데 (웃음)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일 진짜 허다했어요. 엄청 많았어요. 100점 맞았는데 0점이 되기도 하고, 같은 코드를 제출했는데 얘는 100점이고 쟤는 0점이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도 거기 분위기는 되게 태연하게 'life is unfair' 라고 하면서 '그건 네가 이번에 운이 나빴다' 라며 넘어갔었죠. 하지만 여기(42서울)에서는 이제.. 이해가 가긴 해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구요. 원래 42 마인드랑은 좀 다르긴 하죠.

Q. 42 실리콘밸리를 경험해보셨잖아요? 42서울과 뭔가 다른가요? 분위기나 학생들 학습태도..

A. 사실 그곳에서는 제가 운영을 한 것은 아니고 학생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걸 많이 못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이 확실히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놀자 분위기였다면 여기는 조금 더 점수 5점 차이에 되게 민감하시고, 꼭 100점 맞아야 하구요.(웃음)

Q. 42에서 컴퓨터들이 돌아가는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수많은 컴퓨터에 로그인을 하면 내 기록들이 다 따라붙잖아요?

A. 일단 42의 아이맥들은 커스텀이 되어 있어요. 뒷단에서부터, 아주 깊숙한 곳 부터 프랑스(에꼴42)에서 조작을 해놨어요.

Q. 원래 맥이 그렇게 커스텀이 가능한 기기였나요?

A.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가능하더라구요. 그렇게 커스텀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할 때도 어떤 서버에 학생들이 쭉 있거든요. apply site에서 학생들이 check in 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버에 학생들이 한명씩 생성이 돼요. 그러면 아이맥에서 로그인을 했을 때 거기 들어가서 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거에요. 만약 있다면 거기 연결되어 있는 student storage 서버에 연락을 해서 '야 여기다 붙여' 하는거죠.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로그인해도 자기 작업물이 있는게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거에요. 그리고 컴퓨터마다 moulinet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채점 요청을 하면 그 컴퓨터 중에 일할 수 있는 컴퓨터에 연락을 해서 '야 이거 채점해'라고 명령을 주는거죠.

Q. 그리고 학생마다 저장공간도 비교적 적잖아요. 5GB?

A.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한건데, 제가 프랑스한테 들은 답변으로는 부족하지도 많지도 않다. 딱 적당하다 라는 답변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부족하지는 않고 너무 크면 뭔가 부하가 생길 것 같고 그래요.

Q. 그럼 업무하시면서 뭔가를 모를 때 여기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프랑스에 항상 연락을 해야해요?

A. 저는 일단 두수 팀장님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고요. 팀장님이 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시고 아니면 이제 프랑스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저희 서버가 프랑스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럴 때는 프랑스에 연락을 하죠. '일어나라'구요(웃음). 그래도 42가 세계적으로 캠퍼스가 많아지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체계가 많이 잡혀가고 있어요. 위키 페이지도 만들구요. 42서울 1기 때 보다는 연락도 훨씬 잘 되구요(웃음).

Q. 크리스틴님의 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제가하는 업무요? 저는 IT 인프라 담당이고 필요에 따라서 업무용이나 교육용 툴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Q. karvin도 개발하신건가요? 왜 이름이 karvin 이에요?

A. kristine + marvin 이에요(웃음).

Q. 42서울에 오래 있었는데 요즘 카뎃들은 크리스틴을 잘 모르기도 하나봐요.

A. 맞아요. 진짜 잘 몰라요. 제가 시험이 있는 날 시험시작 5분 전에 '핸드폰 집어넣으세요'라고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과정 카뎃분이 봉사하시잖아요? 그 분이 '자리에 빨리 앉으세요. 지금 일어나 계시면 안돼요. 빨리 앉으세요'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 스태프입니다'라고 했죠. 그 정도로 절 모르세요(웃음).

Q. 그래도 개인 이모지가 있는 분이잖아요. 파란머리의 이모지요. 파란색깔이 좋아하는 색깔인가요?

A. 그건 아니었는데 다른 색깔 염색을 해봤고, 파란색은 안해봐서 파란색으로 염색을 한거였어요. 그리고 42 다니면 저를 상징하는 색처럼 되어서 좀 애착이 가기도 해요.

Q. 개발자로서 요즘 제일 관심있는 툴은 어떤건가요?

A. 저는 좀 얇게 여러가지 다.. 저 adhd인가봐요. 뭔지 알아요? 이거 했다가 갑자기 또 다른거에 꽂혀서 막 했다가 그래요. 요즘은 또 언리얼을 깔았어요. 이전에 AR 프로젝트 했던 것도 있고 해서요. 한번 AR, VR 좀 해보려구요.

Q. 업무의 연장 선상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거에요?

A. 개인적이에요. 업무는 맨날 파이썬만 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 했을 때는 유니티 썼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언리얼이 좋다고 했었는데 유료였어요. 그런데 무료로 바뀌었고 엔진 5 버전이 새로 출시되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구요.

Q. 그 AR 프로젝트는 42실리콘밸리에 계살 때 하셨던건가요? 그게 언제에요?

A. 실리콘밸리에 2017년에 piscine을 했고 2018년에 들어갔거든요. 1년 정도 본교육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뽑혀서 AR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42 학장님과 담당자가 발표를 보고 뽑았었어요. 거기 선정된 팀은 본과정 과제를 안하고 자기 프로젝트만 하면 되는데 대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어디까지 프로세스 됐는지 이야기를 했어야 했구요. 마케팅까지도 팀에서 알아서 다 했었어요. 다들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팀들이었죠.

Q. 42실리콘밸리에서의 피신은 어땠나요?

A. 저는 시험도 거의 다 0점 이었을거에요. 파이널만 제외하구요. 실리콘밸리는 확실히 좀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직영점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42서울은 라이센스를 사서 하는거라 뭔가 하라는대로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42실리콘밸리는 일단 학장님이 42를 창립한 분 중 한 분 이었기도 하고,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학장님이 진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한 인터뷰에서는 인터뷰 하는 분이 '학장님이 추천해서 널 인터뷰 하는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거에요. 근데 항상 주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니면 '너무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아..' 였어요. 아마 열심히 한 걸 많이 보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는 사실 42가 개발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를 생각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의미 있었구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실력이 늘어있는걸 보니까 성취감이 컸거든요. 그 이전에는 제가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성취감 느낄 일이 많이 없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감도 붙고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피신 때 개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옆에 친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걸 보면서도 힘들었거든요. 쟤는 나랑 똑같이 시작해서 저만큼 갔는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많이 깼어요. 지금도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항상 피신 때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는 할 수 있겠지?' 하죠.

Q. 근데 계속 0점 밭고 그럼 계속 하고싶다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A. 그때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성적으로 자르는게 아니라 내 노력도 뭔가 보여주면 나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거거든요. 붙고 싶어서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뭔가를 앉아서 계속 할 수 있구나, 이 길이 내 길인가 보다' 해서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때는 확실히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블로그 한 두 개 있었어요. 그 블로그에 '42는 성적으로 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붙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만 붙들고 했었죠.

Q.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능력 같아요. 쉽게 포기할 수 있잖아요.

A. 그러게요. 페이스북 같은 곳에 보면 42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로 의견이 되게 많아요. 42에 대한 기사를 퍼와서 의견을 공유하는건데 그 밑에 댓글들 보면 '저래가지고는 개발자 양성 절대 못한다', '비전공자인데 어떻게 다 배울 수 있냐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교육 방법이 다른거고 42 교육 방법에 맞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피신을 여는거잖아요. 42가 좋은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도 시스템 쪽, 인프라 쪽으로 커리어를 계획하시나요?

A. 사실 아직도 고민중이에요. 지금 언리얼도 하고 아두이노도 하고 three.js도 하고 있어요. 웹에서 3d 모델링을 쉽게하는 라이브러리가 three.js 거든요. 요새는 웹사이트가 3d로 되어있는게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거에 관심이 가는걸 보면 프론트엔드쪽을 해야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프론트엔드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백엔드도 마찬가지긴 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